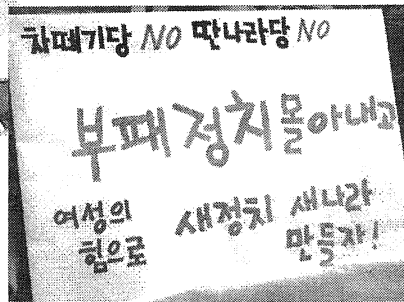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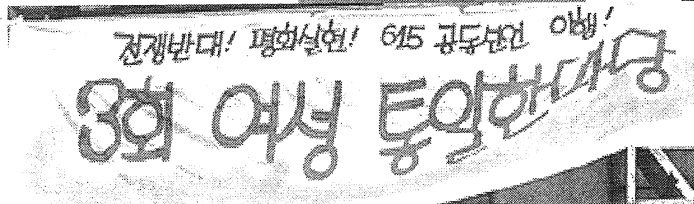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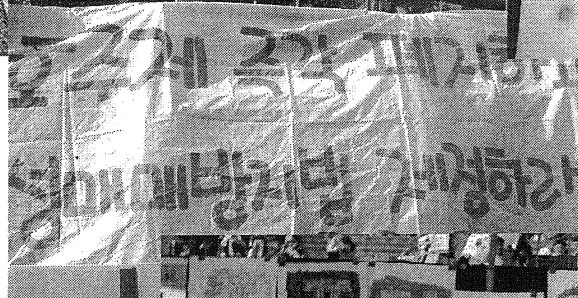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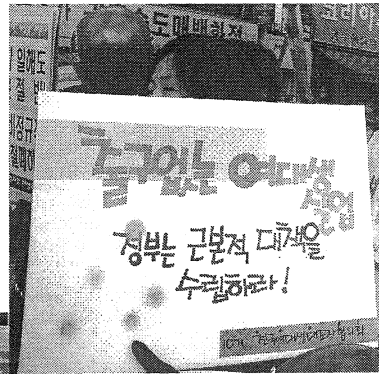


# 15기 대경여대협 정기총회



언제 : 3월 13~14일  
어디서 : 민족 영남대학교

# 내림비치

---

대경여대협 총회 일정.....	3
의장 선출 및 본회의 순서.....	4
15기 대경여대협 의장 후보 결의서.....	5
대경여대협 회의 진행세칙.....	6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강령 및 규약.....	8
15기 대경여대협 총노선.....	15
15기 대경여대협 총회 특별결의문.....	24

# 대경여대협 총회 일정

---

**13일** 여학일꾼들이 한해를 열심히 살아갈 결의를 하는 자리!!

오후 1시 30분 집결  
2시 여성영화보고 토론하기(대구여성노동영화제 출품작^^- 그녀의 무게)  
노래배우기(여성노래)  
4시 정세강연과 토론  
6시 저녁식사  
7시 총회 사전마당(축사 및 연대사)  
한기명 범민련 대경연합 의장님  
윤영석 대경총련 의장  
전여농 경북연합 회장님  
7시 30분 의장선출 및 본회의  
이후 뒷풀이

**14일** 대경총련 일꾼들과 함께 하는 대경여대협 총회

오전 11시 교양시간  
새내기 시간 -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버려!!  
일꾼들 시간 - 학생 운동사회 내 성폭력과 여성관 바로 세우기  
12시 30분 점심 식사  
1시 대경여대협 총회 성사 보고 결의대회  
이후 실천투쟁(경산시장)

# 15기 대경여대협 의장 후보 결의서

자주의 옥토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결의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안아 달라 솔직하게 내보이고...’  
넓은 품으로 우리 여성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깨끗하게 빨아서 널어 두었던 두꺼운 옷을 다시 꺼내  
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학 일꾼들이 혹여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  
다. 이제 꽃샘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절은 이렇듯 때가 되면 따뜻해지듯 우리 앞에 6.15공동선언이라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민중의 적, 미국은 때가 되었는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중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의 피  
를 바치라고 강요를 합니다. 얼마 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의안을 국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농  
민들은 죽는 줄 모르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교육시장은  
개방되었고 우리 대학생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속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민중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해고순위 0순위를 차지하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요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2중 3중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여대생들은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취  
업을 했다 하더라도 70%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남사회에서 우리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여성 민중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 여대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15총선에서 우리 여  
성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나라당을 몰아내고 우리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여성정책 실현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의  
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처음으로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열의열  
정은 누구보다 높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신명  
나는 새여학생운동을 실현하려 합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새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광범위한 대중  
이 주인되는 투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주의 옥토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결의하며  
민족영남대학교 ‘우리’ 총여학생회장 김오희연

# 의장 선출 및 본회의 순서

---

## 〈의장선출〉

선관위 인사 및 활동보고  
의장 후보 유세  
의장 선출  
의장 옹립

## 〈본회의 순서〉

개회  
민중의례  
서기단 선출  
회의 진행세칙 공유  
회순 통과 및 안건 확정  
-총노선 토론 확정  
-기타 안건  
-특별결의문 채택  
회의록 채택  
폐회

# 대경여대협 회의 진행세칙

## 1.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단, 중앙집행위 인준, 회원 징계 등에 관한 것은 비공개 할 수 있다.)

2) 정족수의 원칙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단, 사고 처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3) 일(一)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4) 발언자유 원칙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번안상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회의 불계속의 원칙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동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안건 채택방법 및 회순통과

1) 대표자 총회 안건상정은 중앙상임위원회 안 외에도 대표자의 1/10이상의 연명(규약 제 18조-발의)으로 한다.

2) 안건 채택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동의안은 찬반토론없이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가 끝난 후에 있어서의 회순변경은 찬반토론없이 출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3.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 2) 발언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힌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반 일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 4) 발언시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발제) 및 토론
  -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발언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의장이 제안에 의해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5)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표자 1/20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한한다.
- 6)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각 학교 대표자(총여학생회)로 구성된 의사조정 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4.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 순서

- 1) 원안만이 상정되었을 때
  - ① 안건상정 ② 안건발제 ③ 질의 및 응답 ④ 토론 ⑤ 표결(안건의 성격에 따라 표결한 안건과 결의한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의사수령과 토론 속에서 수정안의 '의사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한다.
- 2)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때
  - ① 안건상정 ② 원안에 대한 발제 ③ 질의 및 응답 ④ 다른 안에 대한 발제 ⑤ 질의 및 응답 ⑥ 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여부를 논의 (각 학교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과 다른 안 제출자와)하고 수정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간다. ⑦ 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찬반토론을 한 후에 ⑧ 선택 표결한다.

### 5. 그 밖에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강령 및 규약

## 대경여대협 전문

대경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대경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 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 대경여대협 강령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2.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결림돌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다.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5.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6. 여성의 인권을 유리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간다.
7. 5만 여학우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8. 백만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 대경여대협 규약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회의 규약은 강령적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회의 규약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 민주집중의 조직운명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약칭:대경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구경북지역 5만 여학도의 통일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적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결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총여학생회의 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 제 2장 조직의 구성

제 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대표 조직으로 한다.

제 5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대여학생조직, 과여학생조직을 가진다.

제 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 제 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9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 제 1절 대표자 총회

제 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제 11조 (구성)

-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 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재, 개정, 의정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 13조 (정기대표자총회와 임시대표자총회)

- 1) 정기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각 학교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가 개최한다.
-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10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도 10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 2절 대표자회의

제 14조 (지위)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대표자회의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 대표자회의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 대표자회의는 대표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4) 대표자회의는 대표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17조 (운영) 대표자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대표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 3절 의장

제 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 19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 20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에는 대표자회의에서 의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 21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다음해 대표자기구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 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을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제 5절 임시체계

제 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 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대표자회의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 28조 (사업)

- 1) 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한다.
-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 3) 대표자 총회를 선전한다.

#### 제 5조 재정

제 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 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8%(전여대협 3%)로 한다.
- 2) 특별회비는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학교별로 구분한다.

제 31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 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여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결의한다.

제 33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 제 6장 시행세칙

제 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다.

#### 제 7장 상 별

제 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 36조 (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8장 보칙

제 37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38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조 (표결)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 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제정) 본 규약은 1995년 4월 30일에 제정한다.

## 시행세칙 1 - 대표자선출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 2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제 3조 (위임권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은 각 학교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의 위임이 가능하다.

## 시행세칙 2 - 선거법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의장 선출을 위해 둔다.

제 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 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외 선거위원은 대표자 중 1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 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6조 (업무와 권한)

-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 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 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원장과 선거본부장들간의 협의회의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보고한다.

제 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 제 3장 의장선출

#### 제 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본회의 대표자 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 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회의, 문건)

#### 제 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5일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 2)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추천서(대표자 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표자는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장의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 제 10조 (선거공고)

-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 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여대협의장의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 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 2) 각 후보자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선과위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3) 선거유세는 대표자 총회에서 1회 30분 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 제 13조 (당선결정)

- 1) 본회의 의장 선출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가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3) 단독출마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14조 (보궐선거) 의장이 탄핵되었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각 학교 총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중 권한대행 1인을 선출한다.

시행세칙 3 - 회비관련 징계

-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이후 한달까지로 한다.
- 2) 기간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5기 대경여대협 총노선

## I. 2004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 >> 2004년을 대경여대협을 바로 세워기야 하는 해이다.
- >> 기층 건설 토대 마련과, 기층 건설·강화의 요구성이 절실한 해이다.
- >> 여학생 운동 대중화로 대경여대협을 강화하고 새여학생운동을 실현해야 하는 해이다.
- >> 사상운동을 전개하여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해이다.

## II. 총론

### 주체역량 강화, 기층 단위 건설 강화로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들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여대생 실업 문제 해결 · 반(反)성폭력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여  
새 여학생운동 실현하자!!**

### <해설>

#### 기층 단위 건설 강화, 주체역량 강화로

대경여대협이 다시 건설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그간 지역 여학생운동이 그리 녹녹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총여학생회들의 조직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층 단위가 없으며,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고 총여학생회가 기층이 없는 채 총여학생회만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총여학생회 차원의 기층 단위 건설사업에 대한 고민정도도 낮다. 심지어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우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줄 기층 단위가 없어서 그 고민을 접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우들 역시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기반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여학생운동은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우들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투쟁과 대중 조직화보다는 여학생회 일꾼들만 하는 운동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보니 여학생회가 광범위한 대중을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을 벌여가지만 기층의 지지기반을 다지지 못하

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학생 운동의 흐름보다는 매년의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의 핵심역량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이 우리의 투쟁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투쟁에 헌신적 무하고 있지만 여학생회 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자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15기 대경여대협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대경여대협의 강화발전으로 한걸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층 단위 건설과 주체역량 강화는 사활적인 문제인 것이다.

##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들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2004년,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국에 의한 분단 60여년 동안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끊어버리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야 할 막중한 과제가 우리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미국과 우리민족과의 대결구도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민족공조로의 공격적인 대응을 뜻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의 이후 높아진 우리민족의 단결과 화합의 열기로 거듭되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핵전쟁책동은 패배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미국의 공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족공조'에 있는 것이다.

7천만 겨레가 '민족공조'의 힘을 믿고 민족 하나하나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들 때만이 미국의 민족분열책동과 대북적대정책, 핵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여대생 실업 문제 해결 · 반(反)성폭력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로**

IMF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은 지금에 와서 급기야 청년 실업 50만 시대를 열어내었다. 청년 실업 50만 시대에 여성들은 가장 손쉬운 해고 대상이 되었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다. 특히나 '여성의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숙련 노동과 보조적인 역할'로 정의되는 터라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 여대생들의 경우에 실업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들에 대한 '배제'였다면 지금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분리'의 형태로 가고 있다. 고용에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고용한 후에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업무에 배치하거나 가부장적 여성성을 강요하는 식의, 은폐되기 쉬운 기업의 성별화된 분리 전략에 놓여있으면서 사회적 구조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제도적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여대생 실업은 단순히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과 사회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증첩되어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대생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여대생 실업 구제에 대한 대정부투쟁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을 막아내고, 여성의 일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가부장성과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으로 상승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얼마전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에서 또 한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터라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한번 대학사회가 성폭력의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의 박물관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대학 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의 원칙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기반마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또한 사건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탄핵하는 사건의 해결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이후, 더 이상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쟁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구성원이



바뀌는 대학의 특성상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만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반성폭력 운동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폭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의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새내기 여대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를 경험하며 학우들의 의식 역시 여전히 성폭력적인 문화에 있어서 너무나 관대하다.

이제 반성폭력 운동은 대학 사회에서 뿌리깊은 성폭력적·가부장적 문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생활문화운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반성폭력 운동으로 벌여나가자.

212 파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서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널리 알려 수많은 역사를 청산하라'고 하셨다. 3월 17일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14년간의 수요시위가 600차를 맞이한다.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14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전 국회에서는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이 통과되었다. 친일의 후손들이 그대로 친미로 남아서 국회에 드글거리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 관련 문제까지 불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 현상까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오래해온 투쟁이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여성차별적 사상으로 여성을 성노예화한 여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여대생이 나서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사회의 친일잔재까지 청산하여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새 여학생운동 실현하자!**

새 시대는 대중의 참여의식과 사회의식이 높아져있는 한껏 높아져 있는 시대이다. 그만큼 대중의 요구도 높아져 있는 것이다. 높아져가는 대중의 요구, 정세의 요구를 실제로 풀어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 역시 높여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조직 현황은 이러한 대중의 받아안기에 부족함이 많이 나서고 있기에 우리 핵심의 역할을 높여내고 여학생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 새 시대, 새 여학생운동의 필연적인 요구인 것이다.

새 여학생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우리 일꾼들의 사업작풍의 전면적인 혁신과 드높아져 있는 대중의 요구를 잘 받아안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만들어갈 만큼의 주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 한해, 새 학생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여학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새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새 여학생운동의 틀을 마련하고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새 여학생운동의 목표와 내용을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새 여학생운동을 구현할 준비를 하자.

새 여학생운동의 준비와 구현에 있어서 바로 핵심은 여학생회 일꾼들의 사업작풍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혁신과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이끌어낼 주체 역량 강화이다.

### III. 15기 대경여대협의 과제

#### 1.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강화하자!!

대구경북지역의 총여학생회들의 조직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과/단대 여학생회 형태의 기층을 가지지 못한 채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사업과 투쟁은 총여학생회만을 위한 사업과 투쟁이 아니라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과 투쟁이라야 하는 것이지만 기층이 없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만으로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을 벌여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여학생 운동은 여학생회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 대중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 대중과 함께 여학생회를 꾸리고 여학생 운동을 하려면, 여학우들 바로 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과 여학생회/과 소모임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들의 현재 여학생 운동의 현황에서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강화하는 것은 여학생회 강화·발전의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 ■ 과/단대 여학생회 건설·강화 사업

- ▶ 과/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 과/단대 여학생 일꾼 모임, 과/단대 여학우 모임
- ▶ 1개과, 1단위 모범창출사업

##### ■ 소모임 사업

- ▶ 1간부 1소모임 갖기 운동

여학생회 간부는 자기 대중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사업을 풀어내고 투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자기대중을 만들어보자. 소모임을 만들고 잘 운영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굳이 만들지 않고도 있는 소모임을 잘 발동해서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가도 좋다. 소모임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층 여학우들을 만나고 조직해내면서 소모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보자.

##### ■ 대의체계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 단대 여학생회 운영위, 과여부 세로모임, 새내기 여대표 세로모임까지 대의체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층을 묶어내면서 기층을 강화해나가자

- ✓ 과 여학생회 운영 해설서 : *비싼거 제로, 과여해설서, 과해설서 읽어보실수 있음. 두꺼운 책이니 경대3.*  
- 추후제출

#### 2. 학우들과 소통하며, 대중이 주인되는 여학생회를 만들어나가자!!

학생회 조직은 그야말로 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열심히 사업하고 투쟁을 벌여내는 조직이다. 여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학우들 속에 살아 숨쉬면서 여학우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을 자신의 삶에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여학우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과 투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소통이 기본이다.

■ 일상적으로 학우를 만나자

- ▶ 직접만남 - 강의실 선전, 이동 총여학생회, 설문지 사업, 인터뷰 사업
- ▶ 매체를 통한 만남 - 메일링 리스트, 인터넷 사업(홈페이지나 카페 활성화, 학내 게시판에 글 올리기),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기, 학내 방송국·학보사·교지편집위원회에 투고사업, 성명 논평을 통해 총여학생회 입장 제출하기
- ▶ 소식지 발간, 학내 여성 게시판 만들기

■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담은 사업을 진행하자

■ 광범위한 대중투쟁의 틀을 마련하자

### 3. 새내기 사업, 제대로 해보자!!

- 전여대협 새내기 사업계획 참고

### 4. 반미반전 · 615 공동선언지지 이행 투쟁을 벌여가자!!

2004년은 반미반전투쟁을 총결산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들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해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책동은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이후로 급격히 전세계적으로 그 힘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미 지도자 모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시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북에 대한 전쟁책동, 대북 고립압살책동으로 한반도까지 집어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4돌을 맞는 올해,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사상 유례없는 한판 대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대결구도에 있어서 미국을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그 해답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든 민족공조에 있다.

미국과 미국에 붙어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미애국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물리쳐나가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투쟁에 있어서 여성들 역시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여학생회 단위 역시 반미반전 · 615 공동선언지지 이행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여학생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벌여가자

■ 핵심사업

- ▶ 대구 여성통일한마당 - 계획서 추후 제출

■ 2회 남북통일여성대회 개최를 위한 투쟁

■ <여성과 통일>, <여성과 전쟁>에 대한 의식화 사업 진행

■ <이북여성바로알기> 사업

■ 반미반전 여대생 선언운동

## 5. 여대생 실업 문제 해결하자!!

여대생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여대생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이 취직에 대한 이야기 일색으로 취업 강연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대생 실업문제의 본질인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탈과 가부장제에 근거한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논의와 의식화부터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여대생 실업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통계내고 연구하는 사업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한 연구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학우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보자.

## 6.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벌여나가자

대학 사회를 성폭력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성폭력, 여성차별, 군사주의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학우들의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사업에서부터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생활문화운동 영역으로까지 넓혀보자.

모꼬지, 대동제 등의 대중사업이나 공동체 문화 안에서 여성차별 군사주의와 성역할 고정을 타파하기 위한 생활문화운동으로 투쟁을 다양하게 벌여가자.

- ▶ 일상적인 기획선전
- ▶ 상시적인 교양사업(강연회, 영화제, 설문조사 등)
- ▶ 모꼬지 생활 수칙 제안하기
- ▶ 과학생회 내 성차별, 군사주의 문화 척결을 위한 자치 규약 제정하기

### ■ 반성폭력 투쟁

#### ▶ 학우들과 함께 벌여가는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투쟁

대구경북지역에는 아직도 반성폭력 학칙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기 그지없는 학칙이 대부분이다.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학내 반성폭력 투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투쟁이다. 하지만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법제적인 측면이 많고 전문적인 연구를 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 학우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본관과의 협상 테이블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그 어떤 것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학우들과 함께 합의하는 과정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투쟁을 벌여가자.

#### ▶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연대모임

2003년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한해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흐름이 놓치지 않고 가져갔었던 성과점이 있다.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면서 지역 차원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반가부장제 투쟁

작년 한해 동안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호주제와 성매매 부분에서 올해에는 직접적으로 법제도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투쟁

을 벌여가야 한다.

- ▶ 호주제 철폐
- ▶ 성매매 척결 투쟁

## 7.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사업과 함께 학우들 사이에서 반일투쟁으로까지 상승시켜 내야한다.

### ■ 핵심사업

- ▶ 전국동시다발 600차 수요시위
-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경여대협이 직접 만드는 수요시위(9월 경)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제(가안) - 하반기

### ■ 일상적 대중사업

- ▶ 학내 거점 수요 1인 시위(방도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재가 자원활동 사업
- ▶ 나눔의 집 방문사업

## 8. 총선투쟁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다지자!!

총선은 우리에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6.15 공동선언의 실현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공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방도 및 과제 추후 제출

여성학 학부에서 입학한 여성지체들 포함.

## 9. 일상적인 연대사업을 벌여가자!!

우리의 연대투쟁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농활 등의 당면 사업에서 필요에 의한 실무적 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학생이 노동자·농민계급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노동자·농민과 함께 이남 사회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서 나가는 연대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일상적으로 연대사업을 벌여가자.

### ■ 연대 단위 방문 및 간담회

- ▶ 1:1:1:1 연대(여학단위 : 여성노조 : 여성농민회 : 여성단체)로 기층연대를 튼튼히 하자
- ▶ 과/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는 과별로 단대별로 1개과/1개단대 1연대단체 사업을 벌여보자

## >> 여성농민

전여대협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2003년 농활이 전농/전여농/한총련/전여대협의 4자 연대의 관점을 가지고 4자 연대의 틀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농활에 있어서 분반활동에서 여성농민반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4자 연대의 관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군단위와 각 대학단위의 4자 연대를 실현하자.

기하시켜준다.

## >> 여성 노동자

### ▶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대구 지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내기 위해 1달에 1번씩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학단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가자. 또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

### ▶ 지역의 여성노동사업장 방문과 지지사업

## 10. 광범위한 조직·사상운동을 전개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자

### >> 사상운동을 전개하자

#### ■ 여학일꾼

#####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자!!

여학생회 일꾼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여학우들의 삶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이 생활하는 부분을 꿰뚫고 있는 것이 총여학생회여야 한다.

##### 여학생 운동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으로 여학생 운동을 신념화하자!

여학생 운동을 하는 일꾼 스스로도 여학생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항상 깊이 사색하는 기풍을 가지자.

#### ■ 대경총련 일꾼

대경총련 차원에서 여성운동을 이남사회의 변혁과제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며,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 정도도 낮다. 여학단위에서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대경총련 일꾼들 역시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어 새 시대, 새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하자

##### 여학생 운동 토론회 또는 교양학교

#### ■ 학우대중

여학생운동을 학우들의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가 필수적이다. 여학우들이 스스로 여성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참여가 있을 수 있다.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강좌사업, 교양사업을 통해서 학우들의 인식 정도를 높여내자.

##### 대경여대협 2주 칼럼

## » 조직체계를 잘 세워가고 운영하자

### 총여학생회 조·종례 정례화

총여학생회의 운영에서 조·종례가 가장 기본이다. 조례를 통해서 하루의 생활을 조직하고 학우들을 만날 계획을 세워가고 종례를 통해서 하루를 총화하고 반성하면서 다음날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조·종례를 꼭 해나가자.

### 대경여대협 대표자 회의 및 핵심일꾼 모임의 정례화

대경여대협의 대표자 회의와 핵심일꾼 모임을 통해서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을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

## » 일꾼들의 사업작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자

- ▶ 대담하고 통큰 사업을 벌여나가자
- ▶ 대중의 요구를 받아안는 사업을 벌여나가자
  - 학우들을 주도적으로 만나자
- ▶ 여학단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단위를 발동하는 사업을 전개하자
  - 대경총련 중앙위를 비롯 학내 학생회 공간단위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하자

## IV. 시기별 흐름

### 3.8 여성의 날

대경여대협 총회

### 3.17 600차 수요시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한마당/ 대경총련 출범식/ 대경여대협 출범식

전여대협 총회

### 4.15 총선

봄농활

전여대협 출범식

농활

대구 여성통일한마당 / 2회 남북여성통일대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경여대협이 함께 준비하는 문화제

# 15기 대경여대협 총회 특별결의문

## 미국을 등에 업은 정권 찬탈 음모, 한나라당, 민주당 해체하라!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한발 한발 어렵게 다져온 길을 일거에 후퇴시킨 날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야합하여 국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러나게 하려 한다.

누가 그들에게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를 주었나. 이미 민중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16대 국회에게 우리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킨 16대 국회는 이제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든,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회 쿠데타를 감행한 낡은 세력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외면한 지는 오래다. 우리 민중들의 피땀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바쁜 이들을 4.15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우리 민중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짜'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가려내어 선출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시대, 새정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여대생들이 앞장서서 수구보수세력들을 심판하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정치 실현의 선봉에 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상실한 16대 국회를 해산하고 4.15 총선에서 낡은 정치를 심판하자.

- 한나라당,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을 해체하라!
- 민심을 외면하는 16대 국회 해산하라!
- 여성이 앞장서서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시대, 새정치 실현하자!
- 탄핵을 전면 무효화하고 4.15 총선 사수하자!

2004년 3월 13일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